

여수박람회 국제심포지엄

伊 엑스포 전문가 리니오 브루토메소교수 인터뷰

“J프로젝트 등 외자 유치 적격자”

전남도 정부부지사 전문금융인 이상면씨 내정

“정부로비 절대적... 모로코 경계해야”

지역민 지지 열기 높아 유치 가능성 커 여수, 바다 인접·중소도시 장점 활용을

‘2012 여수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리니오 브루토메소(59·사진) 베니스 IUV대학교 교수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여수의 박람회 유치 열기와 가능성을 높여 달 것을 주문했다. 특히 박람회 유치가 성공하려면 BIE 회원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로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루토메소 교수는 도시 수변공간의 재활성화와 도시디자인 분야 전문가로 지난 1998년 ‘바다미래를 위한 유산’을 주제로 한 리스본 박람회 때 이탈리아관을 짓는 데 기술책임자로 참여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여수의 세계박람회 유치가능성은...
-지난해 10월 3개 유치경쟁국 가운데 모로코를 방한한 경험이 있다. 모로코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이며, 현재 지중해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를 건설하고 있

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수도 경쟁에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정부와 지역 시민의 적극적인 지원이 그것이다.

과거 이탈리아 베니스는 2000년 박람회에 도전하다가 철회했으며, 이탈리아의 또 다른 도시도 결국 실패했다. 이들 두 도시는 정부의 지원이 부족했으며, 지역 내 주민들 사이에 반대여론도 있었다. 세계박람회는 국제대회이긴 하지만 현재의 지지와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오늘 오전 도착한 여수공항에서의 환영인파는 지역민들의 지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여수는 이번 박람회 유치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본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정부차원의 역할이 있다면...
▲지역 내 지지와 지원도 중요하지만 결국 국제박람회는 국제행사라는 점에서 전체



BIE회원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결국에 국가간 ‘로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로비 효과를 가장 극대화한 국가가 최종 계인(투표)에서 승리할 것이다.

▲여수의 도시디자인에 대한 견해는...
-여수는 ‘바다에 인접해 있다’는 조건을 심분 활용해야 한다. 특히 여수는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로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다. 경쟁 도시인 모

로코 탕헤르는 여수보다 규모가 크지만, 대도시에 비해 효과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중소도시의 장점을 활용한다면 경쟁에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수와 경쟁 도시를 비교해달라.
▲폴란드는 가보지 못했지만 여수는 매우 흥미롭고 매력적인 도시다. 지도에서 여수를 찾아보니 섬이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수에서 세계박람회가 열린다면 참가자들은 여수 주변의 섬들도 함께 방문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수가 제시한 박람회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도시가 연안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대사회는 환경보존과 함께 사회·경제적 발전을 추구해야 하지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두 가지를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해양과 접해 있는 ‘여수’가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를 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가지 제안할 것이 있다면 연안지역에 건립되는 인간의 정착지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부주제가 제시됐으면 하는 점이다. /홍경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3개월여 자리가 비어 있던 전남도 정부부지사에 국제 전문금융인 이상면(52·사진) 외환은행 글로벌마켓 영업본부장이 8일 내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15일 이근경 전 정부부지사 사퇴 이후 차질을 빚어왔던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한 준비작업이 활기를 띠게 됐다.

당초 새 정부부지사는 경제부처출신 고위 공직자나 전문 경영인 가운데서 발탁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그러나 이 내정자가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J프로젝트) 조성, 국내의 투자유치에 필요한 능력을 갖춰 본래 취지는 살렸다는 평이다.

박준영 전남지사가 ‘장고’ 끝에 이 내정자를 선임한 것은 J프로젝트와 서남해안 개발 및 각종 문화관광 사업 성과를 가늠할 해외자본 유치에 대한 식견과 능력을 높이 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내정자는 지난 1979년 외환은행 입행 후 해외투자 등을 전담해온 국제금융통, 외환은행 영국 런던 현지 증권회사인 ‘KEB International Ldn’ 부이사를 지냈고 핀란드 헬싱키 이코노믹스 스쿨(HSE) 경영학 석사이다 영어와 일본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한다. 런던에서 4년, 홍콩에서 1

년 5개월을 지내는 등 해외근무 경력만 5년 5개월에 이를 정도로 세계 외환시장에서 발이 넓고 업무 경험도 풍부하다. 이 내정자는 영국 금융감독원 공인딜러 자격증까지 갖춘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전남도는 그동안 산자부 등 경제부처 출신 고위 공직자 등을 놓고 인선을 고심했으나 일부는 나이가 60세에 가깝고, 지역적 연고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이 내정자가 최종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내정자는 공직 경험이 전혀 없어 취임후 당분간 조직 적응과 중앙부처와의 협조유지에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실무 부서 직원들이 업무에 익숙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담당 ▲광주일보·서울대 경제학과 ▲외환은행 해외증권담당, 홍콩지점 부지점장, 신라부장 ▲외환선물(주) 이사(현) ▲서울 외환시장운영협의회장(현)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당직 인플레’ 광주·전남지역 의원 與지도부 속속 진출

분당 수준의 탈당 충격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광주·전남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이 속속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지역 의원들의 고위 당직 진출에 대해 지역 안배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당대회 이후 추가 분열을 막기 위한 당직 인플레 현상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김성곤 의원(여수 갑)이 지난 6일 최고위원에 추대됐으며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은 같은 날 원내 부대표에 진급했다. 여기에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도 8일 제1정조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처럼 지역 의원들의 잇따른 고위 당직

진출에 따라 우선 지역 현안 사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분당 사태라는 최대 위기를 맞은 열린우리당이 정당대회 직후 추가 분열을 막기 위해 고위 당직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즉, 고위 당직 배분을 통해 정당대회 이후 추가 탈당을 막고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배경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지역 의원들이 고위 당직에 많이 진출한 것은 지역 현안 사업들을 고려할 때 축하할 일”이라며 “그러나 정당대회 이후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한 교육책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유선호의원 우리당 30번째 탈당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영암·장흥)이 8일 탈당했다. 유 의원의 탈당으로 열린우리당 탈당 의원은 30명이 됐고, 열린우리당 의석수는 109석으로 줄었다.

유 의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탈당 성명서에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며 국민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실패했으며, 합리적

진보개혁세력과 미래지향적 안정세력을 규합해 국민정당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위원장이자 김근태 의장 계열인 ‘민평련’ 소속이라는 점에서 친 김 의장 계열 의원들의 추가 탈당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수공항 환영 플래카드 물결 우 쟁민의장 “봄비 여수에 행운”

‘2012 여수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 개막일인 8일, 여수는 밤부터 내린 비로 온 도시가 젖어있었다. 그러나 갈수록 굵어지는 빗방울도 ‘2012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여수시민들의 열망을 적시지는 못했다.

8일 오전 여수공항은 BIE(세계박람회기구) 회원국 대표들이 도착하기 1시간 전부터 세계 각국의 국기와 환영플래카드를 든 시민들이 모여들어 북적거렸다. 오전 11시 50분, 여수공항에 도착한 심포지엄 참가자들이 공항 로비에 모습을 나타내자 100여 명의 시민들이 일제히 환호성과 함께 깃발을 흔들었다. 5대의 차량에 나눠탄 참가자들이 공항 주차장을 떠나고도 한참 동안 시민들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깃발을 흔들었다.

이어 오후 2시 50분부터 전남대 여수캠퍼스 국제회의장에서 시작된 심포지엄은 BIE대표들을 보러 온 시민들로 가득 찼다.

축사에 나선 우 쟁민 BIE총회의장은 “일부 참가자들이 비가 오는 날씨에 불편을 하기도 했지만 여수시민의 열렬한 환영에 모두 기분이 좋아졌다. 너무 감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 의장은 이어 “동양에선 봄에 오는 비는 희소식을 전해 준다는 말이 있으며, 두보의 시에도 ‘봄비는 기름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구절이 있다”며 “입춘이 지나 내린 봄비가 여



8일 오후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열린 ‘2012 여수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BIE 대표들과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 등 국제 전문가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수에 행운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방청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그는 또 “한국은 박람회의 가치와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하고 또 홍보하는 아시아의 개척자”라며 “여수는 박람회 주제를 매우 적절하게 선택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조연설을 한 폴 케네디 미국 예일대 교수도 “아버지와 삼촌은 고향인 영국 북동부 뉴캐슬에서 고기를 잡거나 해

군으로 2차대전에 참가하는 등 모두가 바다를 가깝게 느끼며 자랐다. 그런 만큼 나는 바다와 연안의 중요성을 절감해 왔다”는 개인사를 소개하며 “여수까지 먼 여행을 하게 된 것은 박람회를 유치하려는 여수의 열망을 높게 평가한 때문”이라며 “특히 바다와 연안을 박람회 주제로 제시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홍경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www.bugsatory.co.kr

EBS와 함께하는

세계 곤충 학습 체험전

2007. 1.20 (토) ~ 3.18 (일) / 광주비엔날레 1전시관

문의: 062-220-0541 / 1588-0766

www.bugsatory.co.kr

곤충의 세계를 탐험하고, 곤충의 생태를 배우고, 곤충의 세계를 체험하는 특별한 기회입니다.